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진로와 관련해 수차례 상담을 드렸지만 아직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대리님은 제게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를 나가면 제게 더 좋은 선택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듭니다. 반면에 젊은 나이에 적성에 맞고, 근무시간도 적당한 일자리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하는 근심도 늘어갑니다. 제 목표라고는 해도 지나친 욕심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A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와 너무 먼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당면한 문제는 의연하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경

할게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안을 드립니다.

내담자는 스스로 의욕이 없다는 점을 자각하는 분이기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왜 의욕이 없을까?”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해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가장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에 자신의 ‘의욕 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법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보면 사라지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종교를 생각해보셨더니 반가운 마음이 생깁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심정이 될 때 종교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을 때, 생각에 깊이 빠지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매사 의욕 없고 제 존재 의미를 못 찾겠어요
‘의욕 없음’에 대해 관찰하며 행동하세요

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을 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 직장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점들을 찾아보세요. 퇴사할 경우에는 어떤 점이 이익이 되고 어떤 점을 감수해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로 희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다”, “싫다”라는 이원화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해보실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선이기 를 원합니다. 그보다 기회는 자신이 원한 다면 또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태도 가 더 바람직합니다.

Q 초등학교 때 돌이 있는 주부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겁쟁이만 있는 것 같고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종교라도 가져야 할까요?

A 누구나 살면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번민이 불췌불췌 생각 때가 종종 있지요.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도 하루 24시간을 모두 그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욕 없음’에 대한 관찰, 가까운 사람이나 교회 성당 등에 가보시는 것도 커다란 행동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Q 명절 때 절에서 차를 지내고 집에서 또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A 제사는 민족·종교·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관습·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며 좋은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히 시킬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절에서는 추석·설 차례를 비롯해 기제사에 불교의식으로 진행하고 스님이 영가법문을 합니다. 사찰에서의 추모의식을 통해 영가들은 집착과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천도되기에 집에서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시간·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과 집에서 제사 지내드리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찾으실 수 있다면 집에서 도 형편에 맞게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a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아플 때 돌봐준 종교는 평생 가요”

희망법당 탐방 춘천국군병원 녹야원

2월 21일 찾은 20여 평 남짓한 작은 법당, 녹야원에는 체육복을 입은 10여 명의 사병들이 웅기종기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이 날은 2010 밴쿠버 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던 날. 주중 일과를 마친 장병들은 법당에서 TV를 시청하며 법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병들은 토매번 선수의 스케이터 날이 얼음판을 지질 때마다 환호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주야 없는 일정 속에 장병들이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곳, 국군춘천병원 녹야원은 장병들의 마음의 안식처였다.

인근 102보충대 지원 법회를 병행하고 바빠 걸음을 옮긴 주지 원상 이왕우 법사가 법당에 들어서자 장병들은 자세를 가다듬었다.

전날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인근 지역불자들과의 1080배 기도정진으로 고단한 몸임에도 원상 법사는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절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의 의미, 둘째는 정진의 의미, 셋째는 하심의 의미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업장소멸에 있습니다. 업이 소멸되지 않고 공덕을 쌓는 것은 뽕투더기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사는 이어 젊은 사병들에게 법당 출입시 부처님에 대한 삼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에 충실한 신생활을 뒤야 사회에서도 신심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좋은 집, 좋은 여자가 따라 오는 것이지요.”

무거운 얘기가 진행돼서일까. 문득 이 법사는 재미있는 얘기를 건넸다.

“잘생긴 부처님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

“.....”

“부처햐셈”

잠깐이나마 집중을 잃었던 사병들도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이어진 기도축원에서 가족과 연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병사들의 마음이 정성스럽다.

제대를 5개월 앞둔 김병제 병장은 “어머니께서 불교신자여서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녀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며 “대학시절 학과가 방사선과여서 현재 영상의학과에 근무 중인데 사회에 나가서도 신행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상병은 “교회의 경우는 자꾸 다음에 오라고 해 일과가 겹치면 부담을 느끼는데 법당은 가끔 찾아도 힘들 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사병들이 법당을 편히 느끼는 데에는 수요일 법회일정을 다도교육을 겸한 다과모임과 불교경전 교육, 동아리 활동으로 바꾼 이 법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병원 특성상 병사들은 환자를 돌보라, 부대정비로 작업에 나가라 주중·주말 구분없는 바쁜 생활을 보낸



춘천국군병원 이왕우 법사는 사병들이 법당을 편안한 곳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국군춘천병원 녹야원은?

국군춘천병원 법당 녹야원은 샘밭에 있던 101병원이 1996년 12월 31일 현위치(춘천시 신동 산 10-1번지)에 새로 준공하면서 건립됐다.

현재 녹야원 주지 원상 이왕우 법사 외에 3층 성당에는 군단 신부부, 4층 교회에는 민간성직자가 종교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국군춘천병원에는 2군단사령부, 27사단, 15사단, 7사단에서 후송된 환자 200여 명을 보살피기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행정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비롯한 140여 명의 간부들과 본부·후송·보정중대 150여 명의 사병들이 근무하고 있다.

“잘생긴 부처는?” “부처햐셈!”... 신나는 법문으로 인기 월 1회 기간병·입원환자 대상 인성교육 등 특성화 법회

다. 바쁜 군업무로 군병원의 종교 활동 참여율은 낮았다. 선임병이 작업 등에 나갔는데 후임병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군대 문화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사는 군간부와 장병의 특성에 맞춰 병원내 신심 고취에 앞장섰다. 매주 환자 위문 및 법회를 병행하는 한편 월 1회 기간병과 입원환자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내원환자 환영다과회인 천사데이를 실시했다.

간부포교를 위해 춘병FC에 참여해 월 3-4회 축구시합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월 1회 2군단 법당 쌍용사에서 군간부 불자들이 동참하는 1080배 정진을 병행했다.

이 법사는 “군병원은 군의관·간호장교·군무원 등 여러 종류의 장교들과 후송병과·의무병과 등 다양한 분

과와 병사들이 있어 포교 개척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대 전 전공에 따라 복무하는 특성상 장교들과 병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관련 의료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자포교 등에 앞서 이들의 신생활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된 훈련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는 약사여래의 미소처럼 병원을 나서서 초봄의 길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 법사는 “아플 때 돌봐준 종교는 평생 가기 때문에, 전방에 비해 참여 수는 적지만 불교에 귀의하는 가능성은 더 높다”며 향후 활발한 군병원 내 포교를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2주완성
저자: 법화종현(정종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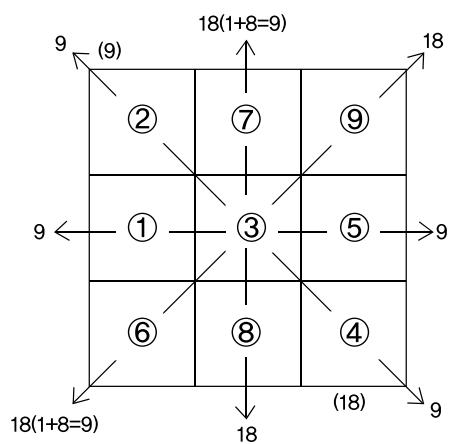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의

월·수·금 : 오후 2시 - 5시
토·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뱀이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승려증소지자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방문시 교재판매,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www.psa.or.kr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법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상에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사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자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문화학	다도예절포교사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설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요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체영관리학과	[기간 - 3개월] 목요일 : 저녁 7시 - 9시	· 스포츠마사지(경력) · 복부비만관리학 · 한의학 기초 · 체형관리학 · 무용정자기요법 · 경력마사지 토크 병행 · 약재전문 취업기술	스포츠마사지사 체형관리사, 재활치료사 기공자연치료사 뜸치유사
만 문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명심보감 · 맹자 · 대학 · 논어 · 증용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지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 - 22장 · 마이너아르카나 - 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10일] 월,수,금 : 14시-17시 / 토 : 13시-17시	· 구단구궁학개론 · 비법교재	저자직강 (법화큰스님)